

“진도 씻김굿 등 우리 소리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18) 진도국악고 3학년 이지원 양

한국예술종합학교 진학 목표로 연습 더 성장한 뒤 관현악 협연도 하고 싶어 명창되어 지역 인재들 도움 주는게 목표

“심정이 인당수에 빠지기 직전에 부르는 ‘범피증류’를 배우고 있습니다. ‘심청가’ 중에서도 가장 장중한 주요 대목으로 꼽히는데요. 전남도의 지인 덕분에 매주 한 차례씩 레슨을 받으며, 실력이 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목이 쉰 상태로 인터뷰에 응한 진도국악고 3학년 이지원(19)양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진학을 위해 연습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지리산을 자주 찾아 계곡 물소리와 경쟁하며 키운 성량과 실력을 보여줄 생각이다.

이양은 국악을 공부하는 언니를 따라다니며 재능을 발견했다. 목표 전국국악경연

대회에 나가 대상을 타면서 인재로 알려져 자주 무대에 올랐다.

“지역인재로 선발해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용이 너무 들어 부모님께 죄송했는데, 이제는 제 역량을 기르는 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전남도와 도민들이 저를 아껴주신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하면서 부담도 따릅니다.”

진도에서 태어나 자란 것이 국악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됐다. 곳곳에서 국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리에 익숙해졌다. 이양은 남도잡가, 진도 씻김굿, 남도 들 노래 등 진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리 음악을 세상 곳곳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 가락과 노래를 배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통국악을 더 열심히 배우고, 나중에 더 성장하면 관현악과 협연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싶어요.”

이양은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과 같은 유명인사가 돼 진도와 전남을 알리는데 기여하는 게 꿈이다.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매일 오전 6시 30분 일어나 오전 개인 연습을 한 뒤 오후에는 한복을 입고 공연실습수업을 받는 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양은 또 전남도와 도민들이 자신을 도왔던 성공한 뒤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후배 지역 인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음악교과서에 실린 국악을 가르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이기도 하고 좀 더 깊이 공부하다보면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될 청소년들이 더 늘어나고, 국악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항상 지역인재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 겐조, 코로나19로 별세



‘패션의 나라’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거둔 일본 출신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高田賢三)가 코로나19로 4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81세.

겐조의 대변인은 그가 이날 프랑스 파리 인근 뇌이쉬르센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AFP 통신, 주간지 르퐁유 등이 전했다. 향년 81세.

1939년 일본 효고(兵庫)현 히메지(姫路)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겐조는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애초 고베대학교에 진학했으나 곧 관두고 분카패션대학에서 진짜 원하는 공부를 시작했다. 졸업하자마자 프랑스 마르세유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은 그는 1964년 파리에 당도했다.

일본식 문화와 서양식 문화를 접목한 겐조의 손에서 태어난 작품들은 파리지앵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고 197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세상에 내놨다.

여성 컬렉션으로 디자이너 생활을 시작한 겐조는 1983년 남성 컬렉션을 선보였고 1988년 향수를 출시했다. 겐조 향수병에 그려진 꽃은 겐조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1994년 여름 파리를 대표하는 다리 ‘퐁뇌프’를 꽃과 담쟁이덩굴로 수놓은 것도 겐조의 작품이었다.

패션쇼가 끝나고 무대인사를 할 때면 소년 같은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겐조는 1993년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에 자신의 브랜드를 매각한다.

/연합뉴스

월산동 주민자치위, 수해 복구 의연금 전달



광주 남구 월산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형석)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5개 세대에 주택피해복구를 위한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월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제공>

광주여대 ‘유교결’ 팀, ‘어린이 보호구역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유아교육과 ‘유교결’ 팀(3학년 김나운, 2학년 조미선)이 최근 개최된 아동안전위원회 ‘2020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이동안전위원장상)을 받았다. ‘유교결’ 팀은 ‘불법주차 응징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여대 제공>

5·18 3단체 봉사단원, 코로나 예방 마스크 착용 캠페인



5·18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가 최근 광주시청앞 사거리에서 5·18봉사단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5·18 3단체는 지난달 5월 6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를 결성하고, 독거노인 돌보기, 수해복구현장 봉사활동, 자연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 왔다. <5·18 3단체 제공>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 ◇과장급 전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윤용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김현복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불법жан 라면연구소 스페셜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⑪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연중 토크스타 완전정복(재)		00 우리가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0 드림맛집 오마주(재)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똑맨 50 뽀뽀보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뽀뽀보 보물섬
⑬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안녕 우리말(재) 55 나의 살던 고향은(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⑭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슈픽 썰과 함께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⑮	00 TV쇼 진품명품(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⑯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투페이스(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⑰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공부가 머니?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불타는 청춘(재)
⑱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최강 1교시
⑲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⑳	30 기막힌 유산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㉑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좀비탐정	20 공부가 머니?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㉒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육담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00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㉓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100분 토론	10 불타는 청춘
㉔	10 KBS결각 다큐멘터리 (백재 의자왕)(재)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55 2020 교향악축제 인천시립교향악단(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곰 브러더스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뽀보 뽀로로	12:30 클래스e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7:45 꼬마하어로 슈퍼액	13:00 EBS 다크프라이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티시테시	14:45 미래쿨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렛	<아시아 밥상 기행-별난 미식, 중국>
08:45 방구대장 뽀뽀	15:45 머털도사	21:30 한국기행
09:00 픽시	16:15 로빈 후드	<죽기 전 한 번쯤, 명당 2부 보물을 품은 터>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30 당동맹 유치원(재)	21:50 EBS 다크프라이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22:45 건축탐구 - 집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	17:20 마사와 곰	23:50 클래스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윙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6일(음 8월 20일 壬午) ☎ 010-9790-8237

36년생 행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48년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60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다. 72년생 불투명한 형국에서 벗어나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84년생 피해를 볼 수도 있다. 96년생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세임을 알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48, 87

37년생 시정하는 것이 옳다. 49년생 지나치다 보면 관계가 건조해질 수도 있다. 61년생 항상 절대적이지는 않다. 73년생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85년생 참신한 발상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97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0, 64

38년생 행동력의 진가를 인식하게 되리라. 50년생 지출은 투자가 될 것이다. 62년생 지난날의 공적으로 인해서 열렬히 환영 받는다. 74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86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98년생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만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행운의 숫자 : 82, 63

39년생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51년생 신운이 자원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63년생 마음이 설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75년생 기존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가 보인다. 87년생 간발의 차이로 인해서 진입하지 못하리라. 99년생 적합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행운의 숫자 : 36, 65

40년생 알면서도 소울 한다면 약화 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52년생 반작용의 현상에 놀랄 수도 있다. 64년생 반복 되는 횡수가 늘어나면서 적응하게 되리라. 76년생 상대는 헌터만 주어도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88년생 난제에 봉착하여 불편하겠다. 00년생 어느 누구에게나 아예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49, 90

41년생 부담을 안고서라도 실행해야 할 한국이다. 53년생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수하지 않게 한다. 65년생 결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77년생 상대의 조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89년생 객관적인 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01년생 경험을 되살리다 보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1, 88

42년생 달던 삼키고 쓰면 뱀이 내는 이가 보인다. 54년생 저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66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78년생 역풍이지만 곧 손뼉으로 바뀌리라. 90년생 처음에는 난감할 것이나 점차 자리를 잡는다. 02년생 삼사일인 한다면 후환을 남기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43, 52

31년생 이면의 실체를 알고 나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43년생 상대방면을 고려할 수 있는 현명함이 절실하다. 55년생 일반적 상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환경 하에 놓인다. 67년생 별 것 아니니 전혀 겁먹을 필요 없다. 79년생 노력에 비해 후한 대가가 따르리라. 91년생 질도 중요하지만 대량이 필요한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02, 94

32년생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여져야 대적이 가능하다. 44년생 거품만 무성할 뿐이고 실속이 약하다는 것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56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68년생 가까운 이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80년생 상세한 정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92년생 정리정돈하기에 좋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5, 96

33년생 좌우시간에 걸려들면 복잡하게 되어 있다. 45년생 간발의 차가 장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야 말 것이다. 57년생 객관적 자료를 참고할 일이다. 69년생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81년생 면밀하고 변통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93년생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8, 56

34년생 심심하지는 않겠다. 46년생 효율성을 제고하자. 58년생 반드시 이행해야 차질을 빚지 않으리라. 70년생 주어진 무를 다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진행해 나간다면 향후의 발전을 기약한다. 82년생 냉철하게 뒤돌아보라. 94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현재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24, 53

35년생 희망 사항이 현실화 될 것이니 기대해 볼만하다. 47년생 등한시 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59년생 개털에 베풀 거둬 하겠다. 71년생 전반적이며 혁신적으로 개편되는 마당이다. 83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속이 있어야 하겠다. 95년생 요령을 찾고 보면 매우 쉬워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54